5·18 사망자 얼굴 대신 '무궁화'로 새긴 30년

'얼굴없는 묘비' 얼굴 찾았다

故 정학근씨 부인 "이제 한 풀렸다"

1980년 5월 2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길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이뤄졌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고(故) 정학근(당시 40세)씨는 아시아자동차 버스에 올라타 시위를 하던 중 계엄군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고인은 수일 후 북구 망월동 구 묘역에 안치된 뒤, 1997년 5월 11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이장됐다.

갑작스런 죽음에 마땅한 사진 한 장 없었던 가족들은 고인의 묘비 앞에 영정사진 대신 무궁화 문양을 새겨놓았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7일 정씨의 부인 임순희(가명·60·서울시)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남편의 얼굴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임씨는 전날 남편의 고향인 광주시 남구의 한 동(洞) 주민센터를 방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고인의 호적·주민등록카드 등을 조회한 끝에 가까스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차가운 땅속에서 30년동안 영정없이 지내왔던 고인이 얼굴을 되찾은 것이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이달 안에 묘비 앞에 설치된 가로·세로 20㎝ 크기의 타원형 세라믹 액자에 고인의 사진을 담아둘 계획이다. 임씨는 "영정 사진 한 장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한(恨)이 이제야 풀렸다"며 그간의 서러움을 토해냈다. 5·18은 임씨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남편은 물론 네 살과 여섯 살배기 두 아들도, 한 남편의 부인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의 삶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희생되면서 임씨의 행복한 삶도 180도 바뀌었다. 5·18이 낳은 또 다른 '희생자'였다.

임씨는 식당 등에서 일해 번 돈으로 두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가정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임씨는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가슴 찢기는 심정으로 목포의 한 보육시설에 두 아이를 맡겼다. "돈을 벌면 다시 찾아 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임씨가 다시 찾았을 땐 두 아들은 프랑스로 입양된 뒤였다.

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제1묘역. 고(故)정학근씨의 묘비 옆에 설치된 세라믹 액자에 고인의 얼굴 대신 무궁화가 새겨져 있다. 원내는 주민등록카드에서 발견된 고 정학근씨의 사진.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임씨는 수년 전부터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입양된 두 아들의 행방을 찾고 있다. 임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해 두 아들을 찾고 있는데, 쉽지 않다. 두 아들을 찾을 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두 아들만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입학사정관제 '공통 기준' 확정

학교 충실한 학생 유리하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7일 밝힌 입학사정관제 공통 기준의 기본 원칙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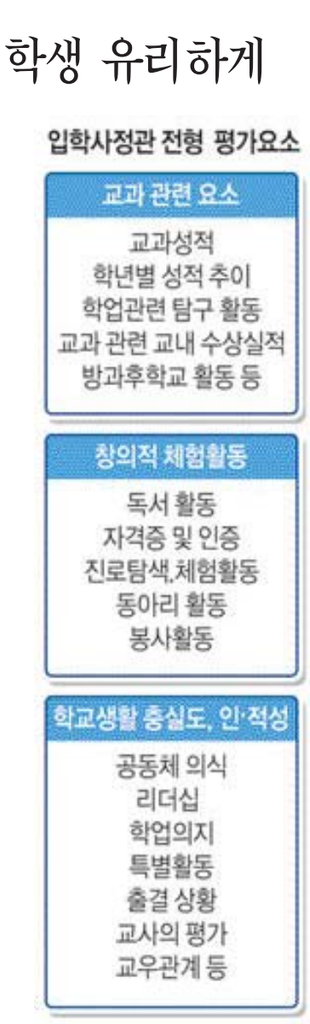
각 대학들은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외 수상실적 평가항목 제외

특히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취득하는 각종 인증점수나 수상실적 등은 주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충실도, 체험 및 진로활동, 학업 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활용해 서류심사, 면접, 토론 등 단계적 평가방식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건학이념이나 인재상, 모집 단위 등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전형방법도 추가할 수 있다.

대교협이 제시한 주요 요소별 평가내용은 ▲교과성적(내신 또는 수능성적)▲성적추이(학년별 학업성취도 등락) ▲학업과 관련된 탐구활동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방과후 학교 활동 ▲독서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이다.



또 ▲봉사·동아리 활동 ▲공동체 의식 ▲리더십 ▲학업의지 ▲특별활동 ▲출결상황 ▲교사의 평가 ▲교우관계 ▲가정환경과 자기극복의지 ▲학교·지역의 교육 여건 등도 포함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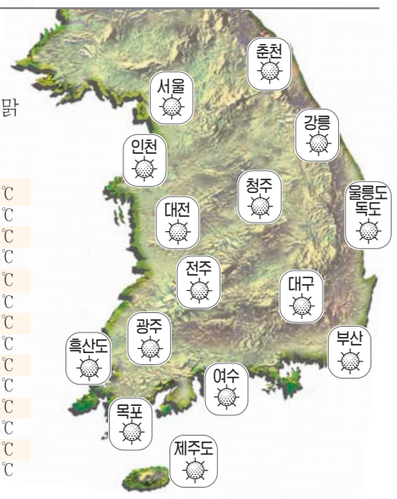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0분 / 해짐 18시 59분 — 달뜸 02시 41분 / 달짐 13시 16분

큰 일교차…감기조심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3/19℃
목 포	맑음	3/16℃
여 수	맑음	6/15℃
완 도	맑음	4/18℃
구 례	맑음	2/19℃
해 남	맑음	1/18℃
장 흥	맑음	0/19℃
고 흥	맑음	2/17℃
순 천	맑음	5/18℃
영 광	맑음	1/16℃
진 도	맑음	1/18℃
전 주	맑음	2/18℃
남 원	맑음	-1/18℃
흑산도	맑음	4/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9:46 / 21:58	02:37 / 15:56
여수	05:40 / 17:41	11:52 / 23:43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날 씨						
최저/최고	6/21	11/20	13/17	12/16	8/13	4/13

광주공항 주변 가장 시끄러워

전국 13곳 중 3년 연속 소음 1위 '오명'

광주공항이 전국 13개 공항 중에서 가장 소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공항은 최근 3년 연속 공항소음 1위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광주공항 등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광주공항의 소음은 86웨클(WECPNL)로 가장 높았다.

2007년 86웨클을 기록한 광주공항은 2008년에는 87웨클까지 올랐다가 2009년 86웨클로 1웨클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내 공항 중 가장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음 정도 분야에서 나주와 목포 등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도시로, 경기도 화성과 평택 등은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통행량 증가로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亞 민주·인권 운동 희생자 유족 광주 모인다

5·18 기념식 참석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5·18 피해자와 아시아지역에서 민주·인권운동을 하다 희생된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만나 토론회를 갖는다.

7일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이하 5·18 유족회)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태국·스리랑카·네팔 등 자국의 민주·인권운동을 하다 희생된 피해자 가족 20여명을 초청한다.

이날 현재 초청자 20명 중 11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초청된 가족들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자국의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애쓰다 희생된 가족들이다. '5·18 유족회'는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겪은 아시아 민주·인권운동가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광주의 5·18과 민주화 과정을 가족들에게 설명해주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5·18 유족회'는 특히 피해 가족들과 함께 5·18 사적지를 둘러본 뒤, 추모제(17일)와 기념식(18일)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에 의해 형이 실종된 독 부시(Dork Vuthy)씨는 "5·18은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원조"라면서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희생자가 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5·18 유족회' 관계자는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비극'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보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회성 모임으로 끝내지 않고 서로 연대해 뜻깊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한 대학서 병행 못한다

한 대학이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을 병행하는 학사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오는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며,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안팎의 기간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주제 발표에서 의전원과 의대를 공존시키는 방안과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양성체제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대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 등 12개 대학이 정원의 절반은 의대로, 나머지 절반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뽑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봄철 A형 간염·수족구병 주의보

이달부터 본격화 전망

봄철을 맞아 A형 간염과 노로바이러스·세균성이질·살모넬라증 등 수인성 전염병이나 수족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지역병의원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A형 간염과 수족구병 등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것이다.

전문의들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끓인 음식을 섭취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며 간염 등 간질환이 있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A형간염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수족구병은 1~3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아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 사이에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